

9/12/21

설교 제목: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15 장 1-21 절

- (출 15:1)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 (출 15:2)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 (출 15:3)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 (출 15:4)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 (출 15:5)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 (출 15:6)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 (출 15:7)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개같이 사르니이다
- (출 15:8)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 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 (출 15:9)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 (출 15:10)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 (출 15:11)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 (출 15:12)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 (출 15:13)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 (출 15:14)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 (출 15:15)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출 15:16)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출 15:17)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출 15:18)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출 15:19)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출 15:20)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출 15:21)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5 장에는 극적인 두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하고 애굽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몰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1-21 절).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그 직후 수르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이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입니다(22-27 절).

저자 모세는 극적인 이 두 장면을 대조시켜 기술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실함을 보여주고 그런 가운데서도 언약대로 신실하게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본문은 두 장면 중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8 절은 모세의 노래이고 19-21 절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남자들과 함께 지난 날들을 회고하고 또 앞으로 광야에서 펼쳐질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이어서 미리암이 이스라엘 여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접어들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1-18 절)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1-10 절) 애굽을 처부순 하나님,

둘째 부분은(11-13 절)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셋째 부분은(14-16 절) 이스라엘을 향한 주변 국가들의 두려움,

넷째 부분은(17-18 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처소와 영원한 통치에 대한 기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을 추격해 오던 애굽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출 15:1)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출 15:2)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 15:3)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는 하나님을 나의 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 용사, 여호와시라고 칭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노래' 곧 승리의 노래, 기쁨의 찬가로 부릅니다.

또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용사' '여호와'라고 합니다.

선조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찾아오셔서 친히 용사가 되어 애굽 바로의 군대를 무찌르신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쫓아온 애굽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버림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 15:4)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출 15:5)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출 15:6)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출 15:7)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개같이 사르니이다

(출 15:8)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 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영기니이다

(출 15:9)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출 15:10)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주의 오른 손은 능력 정의 구원 위엄 권능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민들에게는 보호와 인도의 손이지만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인하는 것에 반해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적인 공의에 근거합니다.

애굽은 교만했고 탐욕스러웠으며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면서 자신의 힘만 믿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일으킨 바람과 파도로 홍해 깊숙히 수장되었습니다.

철제로 만든 갑옷을 입은 바로의 군사들은 돌처럼 납처럼 물에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 누구와도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 영광, 능력에 있어서 그 누구와도 그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출 15:11)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출 15:12)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고대인들은 각 국가 간의 싸움은 곧 그 국가를 지키는 수호신들간의 싸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상대로 승리하신 것은 애굽의 신들을 상대로 승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애굽 바로 왕을 상대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처소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출 15:13)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성결한 처소란 약속의 땅 가나안 나아가서 천국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주의 성결한 처소라고 부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택한 곳이고 둘째 택하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할 땅이며 세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이들을 뒤쫓던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에 수몰되었다는 사실이 그 주변 종족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놀라워하며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출 15:14)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출 15:15)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거민은 가나안과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이들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기뻐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견제하였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모세는 이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출 15:16)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에벤에셀(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을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 15:17)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출 15:18)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주의 기업의 산은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가나안을 산이라고 지칭한 것은 가나안이 대부분 산악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며 자신의 노래를 끝맺습니다.

미리암의 화답송이 이어집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은 모세가 이끈 남성들의 합창에 이어 후렴으로 복창하며 화답합니다.

미리암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도운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아론과 모세의 누이로 일찍이 갈대 상자에 버려진 모세를 구하는데 일조 했습니다.

(출 15:19)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출 15:20)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출 15:21)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들은 입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성경에서 종교 의식 중 춤을 추는 첫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소리 높여 춤을
추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장엄한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언약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약을 이루어내기 위해 친히 용사가 되어 싸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을 이루어내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통치함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친히 용사가 되셔서 우리의 원수를 파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